

한국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

| 일 시 | 2016년 10월13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기업공헌평가원

■———— 회 순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교수)

주 제 발 표

- 이 종 천 (송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토 론

- 양 준 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 조 중 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 윤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질의·응답

폐 회



■———— 목 차 ————■

주 제 발 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재고

- 이 종 천 (송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토 론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1)

- 양 준 모 (연세대 정경대학 교수)

우리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재고

- 조 중 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2)

- 윤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

주제 발표

[주제발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재고

이 종 천
송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재고

2016년 10월 13일

이종천 (송실대 교수/한국기업공헌평가원 이사장)

1. 기업의 국가 · 사회 공헌 역할 재고

[1] 국가 · 사회공헌

부문 1. 가치창출 및 외화가득 공헌 지표

가치창출공헌(매출): 재화와 서비스(국민편익)의 공급을 통한 가치창출

외화가득공헌(수출): 대외의존형인 우리 경제의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외화가득의 주요 원천

부문 2. 국민소득 및 국가재정 공헌 지표

국민소득공헌(급여): 국민 부의 주요 원천

국가재정공헌(법인세): 국가활동의 주요 자원조달 원천

부문 3. 일자리 창출 공헌 지표

일자리창출 공헌(총고용인원)

부문 4. 국가경쟁력 공헌 지표

매출원가율 개선: 국가경쟁력의 주요 척도

연구개발투자: 미래 국가경쟁력의 주요 척도

시설투자: 시설확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원천

부문 5. 사회 및 환경 공헌 지표

기부금: 기업의 주요 사회 공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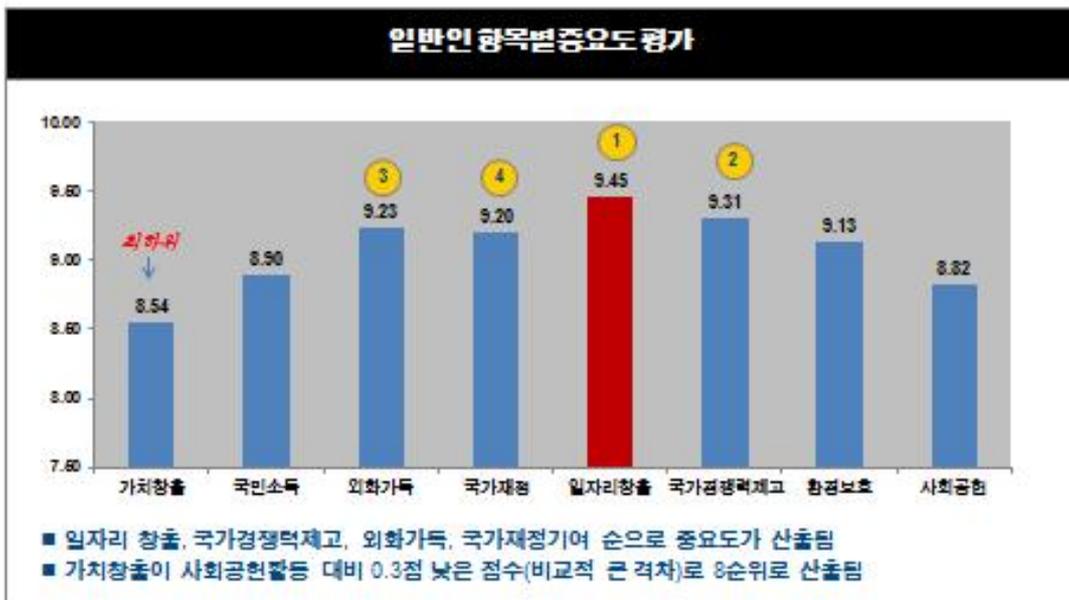
온실가스배출량: 환경 저해 즉, 기업의 환경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

[2]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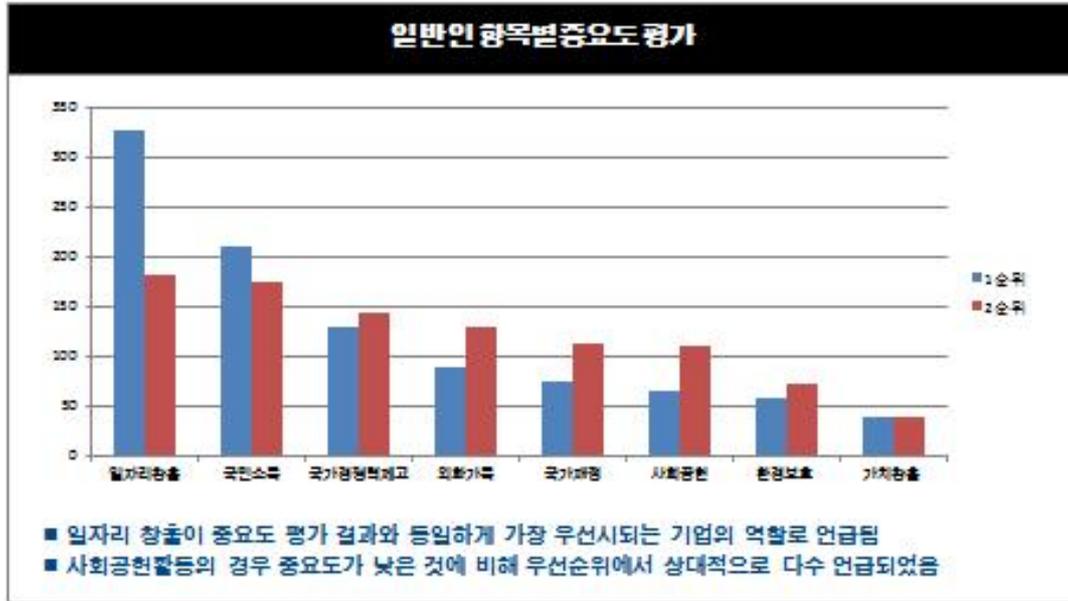
설문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기간	■ 일반인 : 2013년 5월 23일 ~ 5월 27일 ■ 전문가 : 2013년 5월 24일 ~ 6월 5일
조사규모	■ 일반인 : 1,000명 ■ 전문가 : 71명 (기업, 언론, 학계 및 기타 전문가)
표본추출방법	■ 일반인 : RDD(Random Digit Dialing)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법 - 인구 구성비(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에 따른 성/연령별 사후 보정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 3.1%p
수행기관	■ 주플랜엠, 리서치앤리서치 공동 수행

일반인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일자리창출과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응답함



일반인들은 우선순위 평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함



중요도가 낮게 응답된 국민소득이 우선순위에서는 2순위로 높게 응답되었고 환경보호는 중요성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게 응답됨 (다른 항목은 유사함)



일반인과 전문가의 응답에서는 공통적인 부분과 명확히 다른 인식이 구분되어졌으며 특히 1순위 응답의 차이가 결정적인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일반인과전문가의조사결과비교	
1	<p>가장 중요한 기업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기여</p> <p>- 수치상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의 기여가 일반인과 전문가 응답 양측 모두에서 높은 중요성과 우선순위로 평가되었음</p>
2	<p>기업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 가치 창출</p> <p>- 전문가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가장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 극단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여줌</p> <p>-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기업 본연의 역할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이익추구 활동으로만 인식되는 것으로 추정됨</p>
3	<p>외화가득,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인식의 차이</p> <p>- 일반국민들의 외화가득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반면, 전문가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낮은 편임</p> <p>- 특히 전문가들은 연구개발활동을 기업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p>
4	<p>환경보호와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음</p>

[3] 기업의 국가·사회 공헌 인식 제고 필요성

- **기업**
경제발전의 주역
대주주의 이익 추구 - 탐욕
- **반기업정서**
: 기업경영의 위축·왜곡
- **기업의 역할 이해 부족**
국민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 **경영 Paradigm 변화**
이익과 함께 국가경제 공헌 고려
- **자본주의 모순 완화**

II. 기업집단의 국가·사회 공헌

[1] 10대 기업의 국가·사회 공헌

부문 1-1. 가치창출 공헌

(단위:천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1,352.05	1,378.26	-1.90%	0
한국전력공사(주)	585.40	573.34	2.10%	0
현대자동차(주)	444.40	430.46	3.24%	0
기아자동차(주)	327.00	298.50	9.55%	1
엘지전자(주)	283.68	295.56	-4.02%	1
엘지디스플레이(주)	258.56	253.84	1.86%	3
(주)포스코	256.07	292.19	-12.36%	0
한국가스공사(주)	254.82	367.33	-30.63%	-4
현대중공업(주)	244.72	234.63	4.30%	1
현대모비스(주)	190.79	184.52	3.40%	5
10대기업 총계	4,197.51	4,308.63		
전년대비	-3%			
11-20대기업 총계	1,615.35	1,792.86		
전년대비	-10%			

부문 1-2. 외화가득 공헌

(단위:천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1206.14	1225.01	-1.54%	0
현대자동차(주)	250.99	250.19	0.32%	0
엘지디스플레이(주)	249.03	230.20	8.18%	0
현대중공업(주)	220.19	211.58	4.07%	1
엘지전자(주)	211.18	216.50	-2.46%	-1
기아자동차(주)	210.39	205.39	2.53%	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176.98	156.15	13.34%	2
(주)포스코다우	156.28	182.41	-14.32%	-1
(주)엘지화학	133.07	148.96	-10.67%	1
(주)포스코	123.12	124.98	-1.49%	1
10대기업 총계	2,937.57	2,951.36		
전년대비	0%			
11-20대기업 총계	720.04	906.21		
전년대비	-21%			

1

부문 2-1. 국민소득 공헌

(단위:천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99.59	100.42	-0.82%	0
현대자동차(주)	63.71	62.89	1.29%	0
기아자동차(주)	33.10	33.19	-0.27%	0
엘지전자(주)	26.96	25.66	5.09%	0
엘지디스플레이(주)	21.56	18.29	17.87%	1
현대중공업(주)	21.43	21.30	0.73%	-1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0.06	16.05	25.00%	0
(주)케이티	16.33	15.52	5.23%	0
한국전력공사(주)	16.12	14.31	12.61%	1
(주)포스코	14.33	14.53	-1.05%	-1
10대기업 총계	333.26	322.16		
전년대비	3%			
11-20대기업 총계	207.00	177.11		
전년대비	17%			

1

부문 2-2. 국가재정 공헌

(단위:십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3121.57	4469.01	-30.15%	0
현대자동차(주)	1055.79	932.08	13.27%	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877.20	326.71	168.40%	6
현대모비스(주)	659.23	536.20	22.94%	-1
(주)포스코	454.08	433.06	4.86%	0
기아자동차(주)	295.69	455.64	-35.11%	-2
(주)케이티앤지	284.04	250.63	13.33%	3
현대제철(주)	267.60	216.19	23.78%	3
롯데케미칼(주)	223.51	81.81	173.20%	18
삼성물산(주)	215.52	96.68	122.92%	N/A
10대기업 총계	7,454.22	7,701.33		
전년대비	-3%			
11-20대기업 총계	1,722.74	1,688.11		
전년대비	2%			

1

부문 3. 일자리창출 공헌

(단위:천명)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96.90	99.38	-2.50%	0
현대자동차(주)	66.40	64.96	2.23%	0
엘지전자(주)	37.90	37.84	0.18%	0
기아자동차(주)	34.12	34.11	0.03%	0
엘지디스플레이(주)	32.60	32.43	0.52%	0
(주)이마트	30.09	28.70	4.82%	0
현대중공업(주)	27.41	28.29	-3.12%	0
롯데쇼핑(주)	26.03	27.28	-6.64%	0
(주)케이티	23.33	23.37	0.68%	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2.14	21.55	2.73%	0
한국전력공사(주)	20.60	20.22	1.88%	0
10대기업 총계	397.12	398.51		
전년대비	0%			
11-20대기업 총계	144.29	118.60		
전년대비	22%			

1

부문 4-1. 국가경쟁력 공헌(연구개발투자)

(단위:천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11608.68	13755.94	-15.61%	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1089.20	1606.80	23.80%	2
엘지전자(주)	1988.85	2293.30	-13.28%	0
기아자동차(주)	1453.09	1289.56	12.75%	2
엘지디스플레이(주)	1435.97	1497.88	-4.13%	0
현대자동차(주)	920.88	2747.47	-66.48%	-4
현대모비스(주)	615.94	515.00	19.60%	0
삼성SDI(주)	566.93	50.50	1022.64%	33
(주)엘지화학	554.89	511.24	8.54%	-1
삼성전기(주)	418.55	339.79	23.18%	0
LG이노텍(주)	305.34	308.05	-0.88%	0
10대기업 총계	21,553.89	24,607.47		
전년대비	-12%			
11-20대기업 총계	2,182.48	1,970.39		
전년대비	11%			

1

부문 4-2. 국가경쟁력 공헌(설비투자)

(단위:천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변화
삼성전자(주)	12414.13	10672.21	16.32%	0
현대자동차(주)	7005.21	2058.76	240.26%	5
에스케이하이닉스(주)	5745.82	3314.93	73.33%	0
현대모비스(주)	3049.47	674.22	352.30%	13
기아자동차(주)	2874.62	1001.41	187.06%	8
(주)케이티	2369.68	2433.81	-2.63%	-2
현대제철(주)	2073.86	1004.25	106.51%	5
에스케이텔레콤(주)	1729.43	2293.34	-24.59%	-3
(주)포스코	1489.64	1659.13	-10.22%	0
(주)엘지유틸러스	1362.03	2134.76	-36.20%	-4
10대기업 총계	40,113.88	27,246.81		
전년대비	47%			
11-20대기업 총계	7,959.67	8,381.25		
전년대비	-5%			

2

부문 5. 사회 및 환경 공헌

(단위:천억)

회사명	2015년	2014년	개선도	순위연화
삼성전자(주)	374.84	315.75	18.71%	0
에스케이텔레콤(주)	62.91	67.13	-6.29%	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54.68	15.69	248.45%	13
현대자동차(주)	50.38	49.91	1.34%	1
(주)포스코	49.85	50.65	-1.58%	-1
(주)케이티	45.14	65.67	-31.25%	-3
(주)케이티엔지	43.67	6.79	543.36%	27
씨제이대한증권(주)	31.79	22.91	38.76%	2
씨제이제일제당(주)	29.44	30.19	-2.49%	-2
기아자동차(주)	26.96	24.55	9.79%	-1
현대상업개발(주)	23.93	2.59	823.03%	50
10대기업 총계	769.85	649.24		
전년대비	19%			
11-20대기업 총계	180.23	124.30		
전년대비	45%			

2015년 종합순위 20위

순위	기업명	2015년	2014년	증감률
1	삼성전자(주)	128.70	135.204	-5%
2	현대자동차(주)	59.64	57.471	4%
3	기아자동차(주)	30.80	30.795	0%
4	에스케이하이닉스(주)	27.18	19.505	39%
5	엘지전자(주)	26.54	26.674	-1%
6	엘지디스플레이(주)	24.67	22.340	10%
7	현대중공업(주)	20.08	22.648	-11%
8	(주)포스코	18.32	18.888	-3%
9	(주)케이티	17.60	18.269	-4%
10	(주)이마트	15.47	14.937	4%
11	롯데쇼핑(주)	15.08	16.185	-7%
12	한국전력공사(주)	14.42	16.363	-12%
13	현대모비스(주)	12.51	11.029	13%
14	(주)엘지화학	12.41	13.683	-9%
15	(주)대한항공	12.34	12.318	0%
16	현대제철(주)	10.54	9.750	8%
17	삼성중공업(주)	10.43	12.155	-14%
18	삼성에스디에스(주)	9.72	9.724	0%
19	삼성물산(주)	9.61	8.696	11%
20	삼성전기(주)	9.52	8.753	9%

과거 15년간 20대 기업집단 순위 변화

순위	기업집단	2015년 총점 (순위)	2014년 총점 (순위)	2013년 총점 (순위)	2012년 총점 (순위)	2011년 총점 (순위)	2010년 총점 (순위)	2009년 총점 (순위)	2008년 총점 (순위)	2007년 총점 (순위)	2006년 총점 (순위)
1	삼성	116.72(1)	114.12(1)	123.26(1)	99.94(1)	96.80(1)	89.13(1)	73.13(1)	74.43(1)	77.63(1)	73.66(1)
2	현대자동차	69.03(2)	62.68(2)	63.99(2)	63.00(2)	56.83(2)	48.70(2)	49.68(2)	46.43(2)	40.23(2)	43.46(2)
3	엘지	48.36(3)	45.02(3)	43.21(3)	43.69(3)	44.87(3)	34.53(3)	36.31(3)	38.53(3)	33.14(3)	28.08(3)
4	에스케이	39.93(4)	33.33(4)	33.47(4)	36.90(4)	31.14(4)	29.64(4)	26.99(4)	27.60(4)	26.22(4)	27.81(4)
5	한국전력공사	20.78(5)	17.03(7)	18.50(7)	16.23(9)	17.43(7)	14.46(9)	17.63(6)	14.83(7)	24.91(5)	23.34(5)
6	롯데	19.03(6)	18.01(5)	18.04(8)	18.26(7)	17.31(6)	15.24(7)	12.86(8)	11.88(9)	16.19(9)	13.25(8)
7	포스코	17.59(7)	17.50(6)	18.83(5)	18.92(6)	17.16(8)	17.28(6)	17.76(5)	26.49(3)	23.80(6)	20.50(6)
8	현대중공업	15.38(8)	13.72(8)	16.34(9)	19.29(5)	22.61(5)	18.53(5)	16.74(7)	20.30(6)	19.49(7)	13.84(9)
9	케이티	14.78(9)	15.03(9)	18.60(6)	17.07(8)	14.07(9)	13.11(8)	10.63(9)	14.51(8)	16.84(8)	17.19(7)
10	씨제이	13.37(10)	11.72(10)	9.11(14)	8.49(13)	8.00(13)	7.91(13)	6.23(14)	6.96(13)	6.01(17)	3.70(16)
11	신세계	12.49(11)	11.46(11)	10.56(10)	7.53(14)	6.26(15)	5.67(16)	6.04(15)	6.18(16)	6.08(16)	3.79(15)
12	지에스	11.98(12)	11.01(12)	9.81(11)	10.77(10)	11.11(10)	9.54(11)	9.91(10)	7.00(14)	9.43(12)	8.41(11)
13	한진	9.99(13)	9.60(13)	9.68(12)	8.93(11)	8.57(12)	10.53(10)	8.53(12)	9.34(11)	10.32(11)	11.01(10)
14	한화	7.29(14)	7.04(14)	6.88(13)	6.34(17)	5.64(17)	4.73(17)	5.16(17)	5.18(17)	4.91(18)	4.33(17)
15	두산	7.06(15)	6.71(15)	9.60(13)	8.66(12)	9.14(11)	6.71(14)	6.62(13)	8.70(12)	7.74(14)	6.10(14)
16	글로벌아시아	6.41(16)	6.63(16)	6.44(17)	7.14(15)	6.36(14)	9.23(12)	8.86(11)	10.16(10)	10.99(10)	7.44(12)
17	이랜드	5.39(17)	3.48(21)	2.61(31)	2.74(28)	0.10(67)	0.11(68)	0.09(67)	1.24(47)	1.33(44)	1.27(41)
18	조선	5.13(18)	3.19(17)	6.48(16)	4.77(19)	3.17(19)	4.48(18)	4.23(19)	3.23(22)	3.56(23)	2.57(28)
19	엘에스	3.04(19)	4.02(19)	3.09(20)	4.74(20)	3.42(18)	3.54(20)	4.16(20)	3.47(21)	3.72(22)	3.79(18)
20	동원그룹	4.13(20)	4.94(18)	6.33(18)	1.91(37)	2.30(29)	0.17(66)	0.11(63)	N/A	N/A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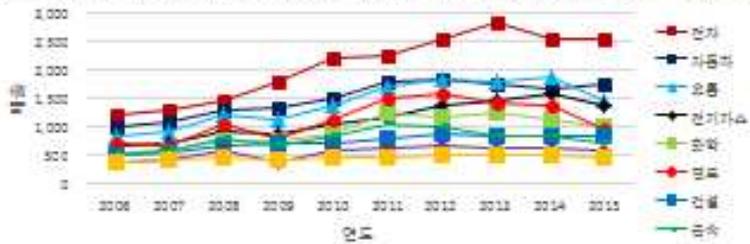
- 과거 15년간 국가별제출된 상위 4위 기업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의 순위는 변화 없음
 - 과거 15년간 필리핀 만판 국가별제출된 순위 상승한 기업집단을 통틀어 3단계 상승, 씨제이 7단계 상승, 한화 4단계 상승함.

[2] 기업집단의 부문별 공헌 추세 분석

가치창출공헌(매출)의 추세분석

(단위 : 천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1,183	1,279	1,463	1,762	2,185	2,234	2,537	2,814	2,827	2,523	-3	-0%
자동차	975	1,084	1,264	1,308	1,482	1,769	1,803	1,736	1,669	1,757	88	3%
유동	810	924	1,181	1,098	1,349	1,704	1,814	1,780	1,859	1,432	-408	-22%
전기가스	643	700	896	874	1,019	1,164	1,381	1,449	1,359	1,335	-203	-13%
화학	542	585	742	739	878	1,289	1,178	1,222	1,122	970	-152	-14%
연료	706	666	1,032	796	1,130	1,490	1,580	1,421	1,380	942	-438	-31%
건설	480	530	637	683	709	762	848	836	816	826	10	1%
금속	483	579	765	658	835	1,035	974	812	812	693	-118	-15%
운송	348	402	384	372	379	611	668	629	607	361	-46	-8%
통신	367	409	460	403	446	454	469	479	473	462	-11	-2%
합계	6,535	7,158	9,026	8,696	10,609	12,458	13,253	13,197	12,817	11,541	-1,27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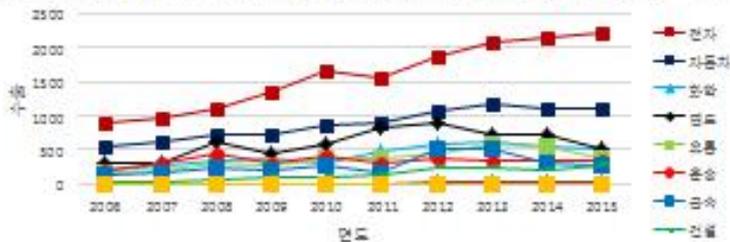


- 전체적으로 2015년 10대 산업의 매출이 10% 감소 : 자동차(8.8조), 건설(1.0조)을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의 매출 감소
- 대부분의 산업에서 2012년 이후 매출이 계속적으로 감소
- 2012년 이후 매출의 감소폭이 급격히 증가 (5.6조 → 38조 → 127.6조)
- 대기업계의 성장률 주도하여 큰 대기업의 위축이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감소추세가 심화되어 향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외화가득공헌(수출)의 추세분석

(단위 : 천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913	973	1,118	1,354	1,645	1,561	1,859	2,071	2,159	2,204	45	2%
자동차	551	611	740	738	859	911	1,067	1,189	1,112	1,092	-20	-2%
화학	221	261	345	377	320	477	589	614	539	533	-26	-5%
연료	324	320	611	464	570	833	894	730	736	514	-222	-30%
유동	184	217	303	284	372	388	463	392	366	376	-100	-34%
운송	210	292	436	308	423	321	364	330	332	329	-3	-1%
금속	139	162	232	202	259	179	334	301	309	290	-19	-6%
건설	26	40	75	104	112	142	234	247	188	267	79	41%
전기가스	0	0	0	0	0	0	21	27	27	37	10	37%
통신	0	1	1	0	0	0	0	0	1	1	1	144%
합계	2,566	2,875	3,861	3,842	4,561	4,183	5,353	5,761	5,989	5,645	-34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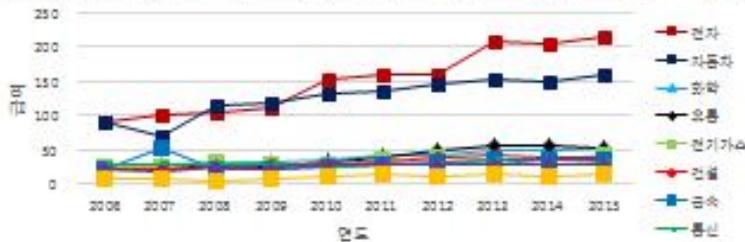


- 전체적으로 2015년 수출도 감소: 6% 감소
- 수출(6%)이 매출(10%) 보다 적게 감소: 국내매출감소(93.4조)가 수출감소(34조)보다 큼
- 2013년 이전부터 많은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 자동차, 화학, 유동, 운송, 금속
-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전자의 수출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자동차는 수출이 감소함
- 대기업계의 큰 증인 수출의 감소는 경제의 심각성을 보여줌
- 대기업계 성장률 향상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증대가 필요함

국민소득공헌(급여)의 추세분석

(단위 : 천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91	99	104	111	153	161	158	208	206	215	9	4%
자동차	91	68	115	118	131	134	146	152	150	160	10	7%
화학	23	29	31	31	33	40	42	47	48	52	5	10%
유동	20	22	28	26	32	39	43	54	53	51	-4	-8%
전기가스	24	26	30	27	29	34	37	36	36	41	5	14%
건설	20	23	25	27	29	32	33	42	37	40	3	8%
금속	20	33	22	22	23	27	32	34	33	33	0	0%
통신	27	29	29	28	26	27	29	34	30	31	1	4%
운송	20	18	24	22	27	28	29	29	29	28	-1	-6%
연료	7	8	9	8	11	13	12	13	12	16	3	27%
합계	345	375	414	421	495	534	571	643	638	668	3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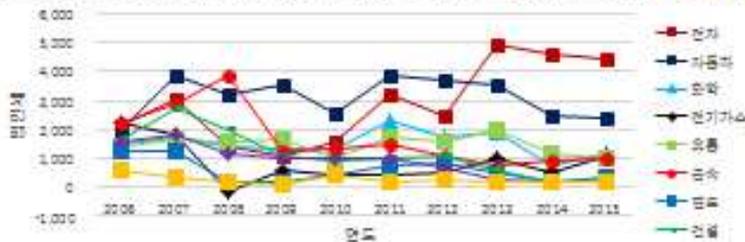


- 매출(-10%)과 수출(-6%)은 감소하는데 급여는 5% 증가
: 국민소득 증대에 공헌하고 있음
대부분의 급여증가는 전자산업(0.8조)과 자동차산업(1조)으로부터
- 매출과 수출은 수년 전부터 감소 추세인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급여는 2015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
: 인건비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을 시사함

국가재정공헌(법인세)의 추세분석

(단위 : 천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2,151	3,042	3,366	3,082	3,559	3,249	2,449	4,920	4,628	4,412	-208	-4%
자동차	1,998	3,899	3,213	3,938	2,842	3,821	3,671	3,499	2,450	2,412	-38	-2%
화학	1,308	1,772	1,398	1,323	1,307	2,174	1,698	1,904	718	1,190	474	66%
전기가스	2,191	1,827	-186	606	460	459	543	958	470	1,051	581	124%
유동	1,405	1,663	1,336	1,688	1,010	1,770	1,552	1,983	1,154	1,033	-119	-10%
금속	2,216	2,863	3,875	1,248	1,353	1,517	1,040	719	938	1,011	87	9%
연료	1,239	1,210	130	207	461	714	840	503	139	318	179	129%
건설	1,614	2,674	1,988	1,113	893	968	1,103	581	198	261	63	31%
통신	1,598	1,812	1,163	980	964	1,011	676	250	154	211	57	37%
운송	564	373	167	110	443	187	234	210	133	357	19	14%
합계	16,481	21,134	14,669	11,893	10,994	13,984	13,807	15,540	10,982	12,080	1,09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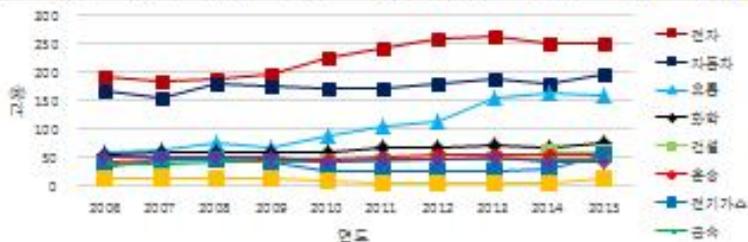


- 매출은 감소(-10%)하였고 급여는 증가(+5%)하였는데, 법인세는 증가(+10%)
: 이는 법인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의미
그러나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10대 산업의 법인세 중 50%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법인세가 2013년 이후 매출의 감소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자리창출공헌(고용)의 추세분석

(단위 : 천명)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190	185	187	194	224	240	257	263	251	243	-8	-3%
자동차	167	153	177	175	172	173	178	187	179	196	17	9%
유동	53	63	75	66	86	103	114	153	161	159	-1	-1%
화학	56	58	60	58	59	69	68	71	68	73	5	8%
건설	35	41	46	44	40	42	43	43	58	60	2	3%
운송	42	46	48	43	48	51	54	54	56	55	-1	-1%
전기가스	35	45	49	44	28	28	28	27	31	58	22	71%
금속	37	39	40	41	41	44	44	46	47	43	-2	-4%
통신	50	51	51	52	44	49	46	48	48	41	-7	-14%
연료	13	13	11	11	8	6	6	6	6	11	5	82%
합계	682	694	740	728	749	793	839	899	896	941	4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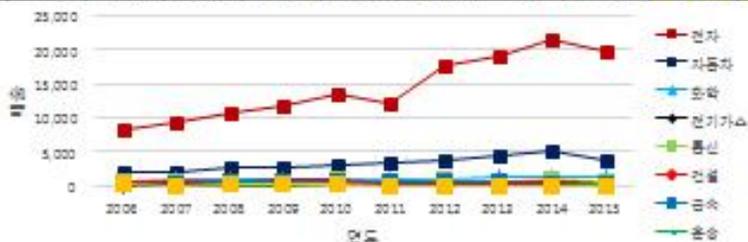
- 급여(5%)와 마진가지리 매출(-10%)과 수출(-6%)은 감소하는데 고용은 5% 증가
- 고용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이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급여가 증가함으로 기업원 저하가 되는 부정적 측면 또한 있음
- 자동차산업이 1조원과 일자리창출(1.7만명)에 크게 기여

1

국가경쟁력공헌(연구개발)의 추세분석

(단위 : 십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8,341	9,431	10,765	11,668	13,446	12,079	17,473	18,905	21,453	19,753	-1,702	-8%
자동차	2,001	2,107	2,543	2,695	3,091	3,332	3,709	4,382	5,090	3,733	-1,356	-27%
화학	642	801	905	982	704	783	954	1,403	1,342	1,319	-23	-2%
전기가스	301	330	315	299	753	754	565	714	732	668	-64	-9%
통신	641	726	723	727	880	620	863	715	891	385	-306	-34%
건설	622	641	724	835	844	647	649	336	472	231	-241	-51%
금속	287	362	503	512	618	643	681	677	270	197	-73	-27%
운송	29	43	36	34	96	99	84	84	122	126	4	3%
유동	64	87	101	105	117	120	133	163	162	26	-136	-84%
연료	85	47	88	97	121	21	10	11	13	13	-1	-8%
합계	13,021	14,575	16,703	17,973	20,671	19,100	25,124	27,589	30,548	26,651	-3,89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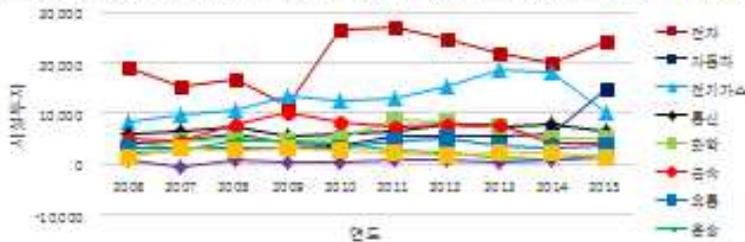


- 2015년 10대 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크게 감소(총 3.9조원, 13%)
- : 매출의 감소(10%)보다 더 많이 감소
-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감소되고 있어 향후 기업원 저하가 우려됨.
- 특히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개발투자가 2015년에 크게 감소하고 있어 기업원 저하가 우려됨
- 세계 헤럴과 국가지원의 확대 등,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국가경쟁력공헌(시설투자)의 추세분석

(단위 : 십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19,033	15,504	16,964	11,726	26,433	27,134	24,833	22,077	19,849	24,133	4,309	22%
자동차	3,933	4,399	6,207	4,076	3,562	3,282	3,432	3,341	6,032	14,897	8,967	147%
전기가스	8,523	9,762	10,829	13,408	12,420	13,064	15,317	18,373	18,247	10,098	-8,030	-44%
통신	5,993	6,326	7,239	5,674	5,755	6,663	7,779	7,370	7,680	6,344	-1,336	-17%
화학	2,773	4,722	4,983	4,509	5,195	8,699	8,204	7,179	4,870	4,830	-40	-1%
금속	4,902	4,531	7,763	10,123	8,233	7,201	7,863	7,663	3,913	4,299	334	20%
유동	3,046	3,203	3,102	3,208	3,262	4,484	4,933	3,636	3,193	3,542	347	11%
운송	2,233	2,332	4,773	4,591	4,230	2,774	2,246	1,249	830	1,842	1,011	122%
건설	773	-630	671	528	514	1,043	746	233	734	1,334	600	82%
연료	1,433	3,134	2,908	3,131	2,834	2,028	1,874	2,053	2,352	1,252	-1,100	-47%
합계	52,740	54,034	63,433	60,991	72,591	78,392	79,233	75,403	67,603	72,593	4,99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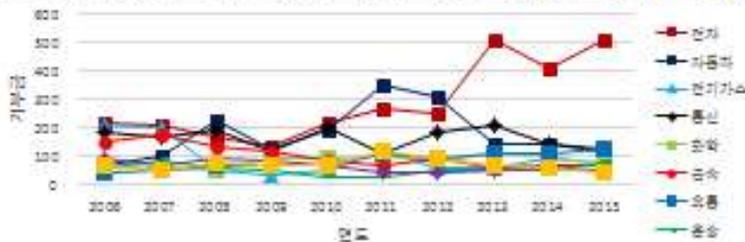
- 10대 산업의 시설투자는 전년 대비 5.0조원(7%) 증가
- 전자산업 4.3조원과 자동차산업 8.9조원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산업별 정책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사회공헌(기부금)의 추세분석

(단위 : 십억)

산업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률)
전자	213	207	165	130	213	269	252	311	412	303	94	23%
통신	182	189	188	113	203	112	182	211	140	119	-14	-10%
유동	43	33	63	69	72	107	96	103	109	113	16	15%
자동차	63	104	212	121	193	332	310	141	139	113	-24	-17%
운송	63	85	33	47	30	20	47	50	34	73	23	43%
전기가스	207	204	43	36	32	119	61	37	92	77	-13	-16%
화학	64	36	30	93	93	93	83	106	98	63	-23	-29%
금속	143	173	136	116	87	63	93	33	64	63	-1	-1%
건설	33	64	91	80	63	33	44	50	36	33	-3	-6%
연료	64	47	79	63	64	120	93	63	39	41	-13	-30%
합계	1,144	1,162	1,102	872	1,072	1,312	1,267	1,334	1,222	1,252	31	3%



- 매출이 10% 감소했음에도 기부금은 3% 증가함
- 그러나 10대 산업의 기부금은 1.2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15년도 전자산업의 비율이 40%로 높음.

1

III. 중소기업의 국가·사회 공헌

공헌부문별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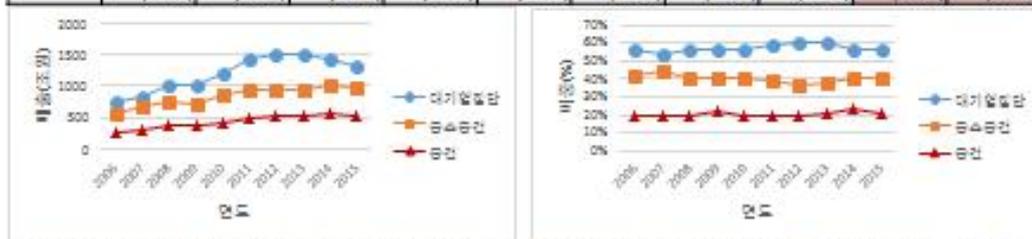
- 대기업집단:
 - 전체분석기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한 외감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을 충족하는 외감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집단과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외감기업
- 소상공인:
 - 통계청의 통계청을 이용하여 자산규모 100억원 이하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의 공헌실적을 계산
 -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청의 자료는 2014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2015년 자료는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추정치임

1

공헌부문별 중소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가치창출

연도별 매출액 (단위: 조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743 (56%)	820 (54%)	1029 (57%)	999 (57%)	1209 (57%)	1411 (59%)	1305 (61%)	1498 (60%)	1444 (57%)	1311 (56%)
중소·중견	564 (42%)	661 (44%)	750 (41%)	728 (41%)	851 (40%)	938 (39%)	926 (37%)	938 (38%)	1017 (40%)	956 (41%)
중견	258 (19%)	297 (20%)	361 (20%)	381 (22%)	424 (20%)	473 (20%)	505 (21%)	514 (21%)	576 (23%)	503 (21%)
소계	1334 (80%)	1507 (82%)	1810 (76%)	1764 (74%)	2105 (77%)	2384 (78%)	2478 (77%)	2481 (76%)	2524 (76%)	2346 (73%)
소상공인	344 (20%)	332 (18%)	583 (24%)	614 (26%)	618 (23%)	670 (22%)	730 (23%)	766 (24%)	799 (24%)	799 (23%)
총계	1678 (100%)	1839 (100%)	2393 (100%)	2379 (100%)	2724 (100%)	3054 (100%)	3208 (100%)	3247 (100%)	3323 (100%)	314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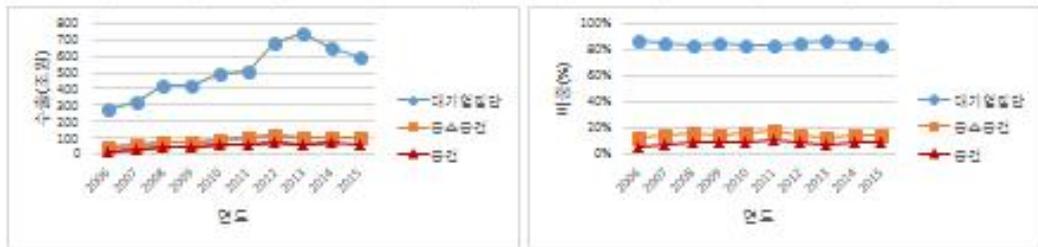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 매출은 133조원(9.2%) 급감하고 중소기업 매출은 61조원(6.0%) 감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규모 매출감소는 우리 경제 위기의 시작에 대한 경고
 - 특히 2012년 이후 대기업의 매출감소를 완화하여 경제를 이끈 중견기업의 매출 73조원 감소는 경제 회복의 대안이 없어짐
-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대규모 매출감소는 기업의 존립에 치명적이며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외화가득

연도별 수출(단위: 조원)

영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279 (87%)	313 (86%)	419 (84%)	420 (85%)	492 (84%)	512 (83%)	679 (85%)	745 (87%)	657 (86%)	598 (84%)
중소·중견	43 (13%)	53 (14%)	81 (16%)	76 (15%)	94 (16%)	106 (17%)	116 (15%)	106 (12%)	105 (14%)	109 (15%)
중견	18 (6%)	25 (7%)	40 (8%)	41 (8%)	53 (9%)	60 (10%)	74 (9%)	63 (7%)	70 (9%)	59 (8%)
총계	322 (100%)	366 (100%)	500 (100%)	496 (100%)	586 (100%)	619 (100%)	795 (100%)	856 (100%)	767 (100%)	712 (100%)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 수출은 59조원(11%) 감소로 2013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중소·중견기업 수출은 4조원(4%) 증가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수출은 11조원(16%) 감소
 - 수출은 2013년 866조원에서 2015년 712조원으로 144조원(16.8%) 감소
 - 국내매출은 2013년 2,391조원에서 2015년 2,434조원으로 43조원(1.8%) 증가
- 내수시장의 규모와 성장 한계로 경제 회복과 성장은 수출증가 없이는 불가능함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정부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국민소득공헌

연도별 인건비(단위: 조원)

영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43 (48%)	49 (49%)	54 (48%)	52 (47%)	61 (50%)	62 (48%)	63 (47%)	69 (48%)	81 (48%)	87 (48%)
중소·중견	47 (50%)	50 (49%)	57 (50%)	57 (51%)	59 (48%)	64 (50%)	68 (51%)	72 (50%)	86 (50%)	91 (50%)
중견	22 (24%)	24 (24%)	28 (23%)	28 (25%)	29 (24%)	32 (25%)	36 (27%)	36 (23%)	45 (26%)	49 (25%)
소계	94 (19%)	101 (18%)	113 (19%)	111 (18%)	122 (18%)	128 (18%)	134 (17%)	144 (17%)	171 (20%)	182 (21%)
소상환	403 (81%)	452 (82%)	474 (81%)	497 (82%)	548 (82%)	595 (82%)	641 (83%)	681 (83%)	672 (80%)	672 (72%)
총계	498 (100%)	553 (100%)	587 (100%)	608 (100%)	670 (100%)	723 (100%)	775 (100%)	825 (100%)	842 (100%)	85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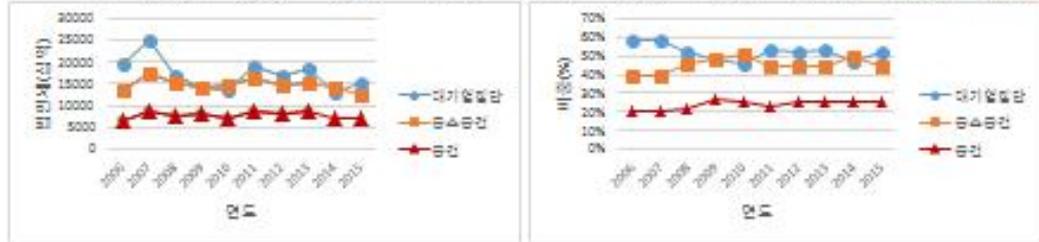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 인건비는 6조원(1.2%)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인건비는 5조원(5.8%) 증가
- 대기업집단의 경우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인건비의 증가는 경쟁력과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국가재정공헌

연도별 법인세 (단위: 십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19640 (58%)	25247 (58%)	17148 (52%)	14150 (48%)	13442 (46%)	19119 (53%)	17065 (52%)	18411 (53%)	13302 (47%)	15034 (52%)
중소·중견기업	13659 (40%)	17573 (40%)	15227 (46%)	14123 (48%)	14831 (51%)	16333 (45%)	14904 (45%)	15513 (45%)	13941 (49%)	12592 (44%)
합계	6779 (20%)	8990 (21%)	7467 (22%)	7999 (27%)	7389 (25%)	8495 (23%)	8411 (26%)	8597 (25%)	7123 (25%)	7337 (25%)
총계	34013 (100%)	43611 (100%)	33211 (100%)	29513 (100%)	29033 (100%)	36413 (100%)	32914 (100%)	34830 (100%)	28576 (100%)	2887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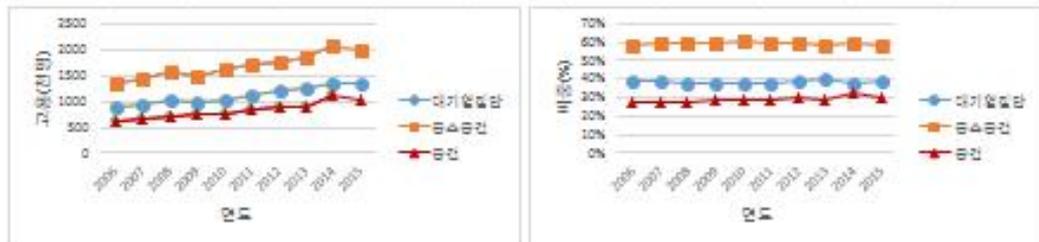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 법인세는 1조7천억원(13.0%) 급증하고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는 1조3천억원(9.7%) 급감함
- 대기업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급증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감소로 인한 법인세 급감은 이들 기업의 경영난을 대변함
- 법인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축과 법인세 감소의 막սսսս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법인세의 인상이 아닌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노력이 필요함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일자리창출

연도별 고용 (단위: 천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905 (39%)	936 (39%)	1005 (38%)	965 (38%)	1005 (38%)	1099 (38%)	1192 (39%)	1270 (40%)	1333 (39%)	1347 (39%)
중소·중견기업	1337 (58%)	1447 (60%)	1571 (60%)	1502 (60%)	1612 (61%)	1736 (60%)	1775 (59%)	1839 (58%)	2092 (60%)	2006 (58%)
합계	614 (27%)	677 (28%)	718 (27%)	733 (29%)	774 (29%)	847 (29%)	911 (30%)	912 (29%)	1122 (32%)	1029 (30%)
총계	2299 (15%)	2429 (15%)	2623 (16%)	2523 (15%)	2658 (15%)	2872 (16%)	3023 (16%)	3164 (17%)	3492 (18%)	3482 (18%)
수용인	13137 (83%)	13514 (83%)	13664 (84%)	14295 (85%)	14989 (85%)	15221 (84%)	15546 (84%)	16009 (83%)	15683 (82%)	15683 (82%)
총계	15436 (100%)	15944 (100%)	16283 (100%)	16818 (100%)	17647 (100%)	18093 (100%)	18562 (100%)	19173 (100%)	19173 (100%)	1911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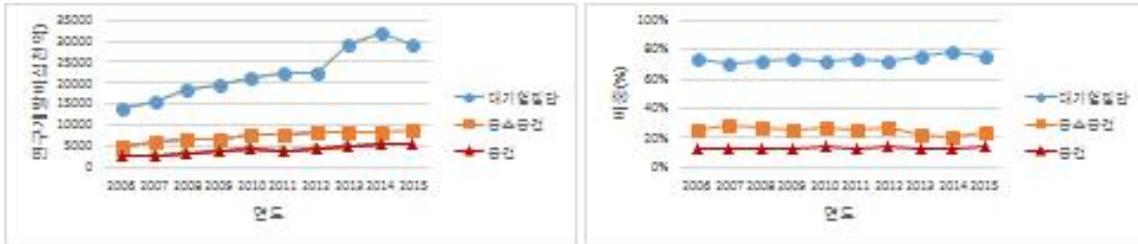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집단 일자리는 1만4천명(1.1%) 증가하나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는 8만6천명(4.1%) 감소로 이는 중견기업 일자리가 9만2천명감소에 기인함
- 대기업의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증가는 실업률저해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결과이나 향후 대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중견기업의 매출감소는 일자리감소로 직결됨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국가경쟁력공헌

연도별 연구개발비(단위: 십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14087 (74%)	15858 (71%)	18193 (72%)	19572 (74%)	21173 (72%)	22223 (74%)	22433 (72%)	29103 (76%)	32343 (78%)	29260 (76%)
중소·중견	4650 (25%)	6148 (28%)	6693 (27%)	6650 (25%)	7870 (27%)	7642 (25%)	8420 (27%)	8507 (22%)	8445 (20%)	8952 (23%)
중견	2512 (13%)	2830 (13%)	3252 (13%)	3461 (13%)	4069 (14%)	3778 (13%)	4336 (14%)	4593 (12%)	5169 (13%)	5498 (14%)
총계	18969 (100%)	22239 (100%)	25179 (100%)	26613 (100%)	29306 (100%)	30150 (100%)	31322 (100%)	38099 (100%)	41318 (100%)	3868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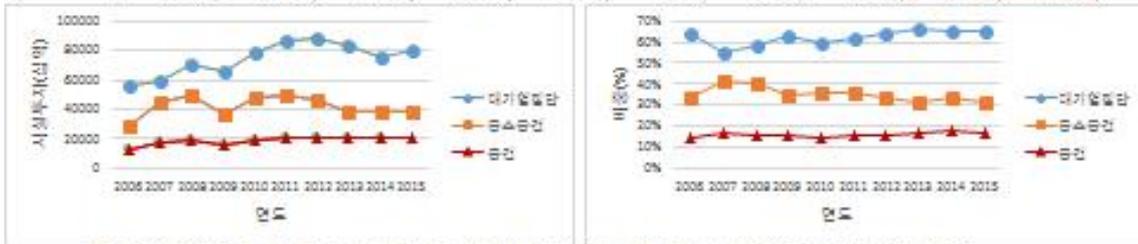


- 계속 증가한 대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전년대비 2015년에 3조원(9.5%) 감소는 우려할 사항이며,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투자의 5천억원(6%)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
- 2013년 이후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감소추세의 역전을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함
- 창조경제의 핵심인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노력이 필요함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국가경쟁력공헌

연도별 시설투자(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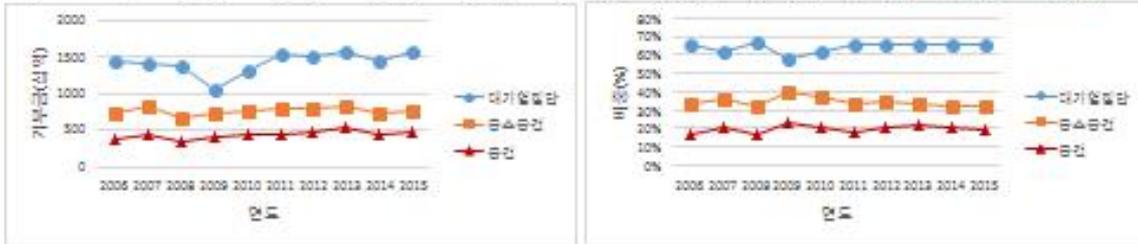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56686 (64%)	58798 (53%)	71313 (58%)	66315 (53%)	79390 (60%)	86634 (62%)	88683 (64%)	83217 (66%)	75411 (63%)	80019 (63%)
중소·중견	28878 (33%)	45202 (42%)	49204 (40%)	36981 (35%)	48043 (36%)	49963 (36%)	45984 (33%)	38948 (31%)	38132 (33%)	38358 (31%)
중견	12387 (14%)	17183 (16%)	18874 (15%)	16125 (15%)	19089 (14%)	20799 (15%)	20181 (15%)	20100 (16%)	20439 (18%)	20644 (17%)
총계	88093 (100%)	108519 (100%)	123858 (100%)	105962 (100%)	132133 (100%)	139907 (100%)	137595 (100%)	125647 (100%)	116708 (100%)	122283 (100%)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 시설투자는 4조6천억(6.1%) 증가하나 2012년에 비해 저조하며,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는 2천억원(0.5%) 증가하나 2011년에 비해 저조함
- 저조한 시설투자는 경기침체와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반영함
- 시설투자와 연구개발투자의 감소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저하는 수출감소의 확대와 경제부진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음

공헌부문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집단의 비교-사회·환경공헌
연도별 기부금(단위: 십억원)

영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집단	1441 (65%)	1409 (62%)	1379 (67%)	1045 (38%)	1302 (62%)	1544 (63%)	1510 (63%)	1583 (66%)	1456 (63%)	1582 (66%)
중소 중견	734 (33%)	823 (36%)	651 (32%)	729 (40%)	768 (37%)	794 (34%)	809 (35%)	814 (34%)	723 (32%)	772 (32%)
중견	364 (17%)	449 (20%)	350 (17%)	422 (23%)	433 (21%)	433 (18%)	467 (20%)	525 (22%)	452 (20%)	462 (19%)
총계	2201 (100%)	2261 (100%)	2059 (100%)	1806 (100%)	2097 (100%)	2368 (100%)	2341 (100%)	2416 (100%)	2241 (100%)	2408 (100%)



- 전년대비 2015년 대기업 기부금은 1천 3백억원(8.6%) 증가하고, 중소·중견기업 기부금은 5백억원(6.8%) 증가함
- 기부금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는 추세인 유지는 준조세의 성격이 많은 기부금이 있음을 의미함

IV. 산업별 국가·사회 공헌 분석

산업분류와 분석대상산업

-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을 46개 산업분류(3digits/4digits)중 매출 비중과 기업 수 비중,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30대 산업을 통합 선정.
- 30대 산업 중 10개 산업을 공헌점수 기준으로 선정하여 집중 분석

대규모기업집단 10대 산업 8대 평가지표 비중 (2015년)

*단위 : 매출 전액원, 수출 전액원, 급여 전액원, 고용 전명, 법인세 실액, 연구개발 실액, 설비투자 실액, 기부금 실액

산업명	산업분류	순위 (2015)	기업수	매출	수출	급여	고용	법인세	연구개발	설비 투자	기부금	
전자	컴퓨터 장비 및 정보 통신기기 제조업	1(1)	36	2,523	2,204	215	248	4,422	19,753	24,159	505	
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업	2(3)	25	1,757	1,092	160	196	2,412	3,733	14,897	115	
유증	석유 및 석유제품 제조업	3(2)	101	1,452	376	51	159	1,035	26	3,542	125	
전기가스	전기, 가스, 증기 및 증기열 공급업	4(4)	61	1,355	37	41	33	1,051	668	10,098	77	
화학	화학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유기화학	5(5)	60	970	533	52	73	1,190	1,319	4,830	68	
연료	석유, 연료 및 석유광제품 제조업	6(5)	9	942	514	16	11	318	12	1,252	41	
건설	종합 건설업	7(7)	66	826	267	40	60	261	231	1,334	33	
금속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8(8)	39	693	290	35	45	1,022	197	4,299	63	
운송	운송업	9(9)	62	561	329	28	35	157	126	1,842	78	
통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10)	14	462	2	31	41	211	585	6,344	126	
10대 산업 집계			473	11,541	5,645	668	941	12,080	26,651	72,595	1,252	
10대 산업 비중				49%	88%	94%	76%	70%	82%	91%	91%	79%
전체 산업 집계			939	13,134	6,003	876	1,330	14,748	29,260	80,072	1,582	

1

중소·중견 10대 산업 8대 평가지표 비중 (2015년)

산업명	산업분류	순위 (중견기업)	매출	수출	고용	급여	법인세	연구개발	설비 투자	기부금	기업수	
자동차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업 및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1(2)	93.3	14.3	8.8	183.0	726.3	998.5	4746.2	22.9	1246	
유증	석유(자동차 제외), 프래 및 상용 운송업	2(1)	137.4	9.3	7.3	150.9	1332.0	210.6	2250.3	79.1	2137	
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53.8	19.6	6.4	139.8	538.8	1561.8	1912.8	18.8	1074	
기타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4(6)	16.6	0.1	3.3	181.4	273.3	23.8	933.3	14.6	409	
기타기계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	49.8	12.2	4.8	124.9	628.9	944.6	1612.3	27.4	1301	
금속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4)	73.4	9.7	4.4	124.3	717.3	260.3	2543.7	27.9	1470	
식음료	음료 및 식료품 제조업	7(7)	52.3	1.5	4.3	104.0	758.2	170.2	1774.7	47.6	490	
운송	운송업	8(8)	35.9	1.5	4.4	99.4	369.6	9.0	4353.7	25.8	788	
의약품	의약품 불필 및 의약품 제조업	9(12)	21.0	2.3	5.0	59.3	373.0	1354.6	1392.9	42.3	240	
건설	종합 건설업	10(10)	60.4	0.2	3.7	50.6	862.0	140.3	1563.7	71.2	1261	
총 합			955.8	108.8	90.8	2005.9	12592.3	8952.2	38357.7	772.1	19634	
10대 산업 집계			595.8	70.9	54.6	1218.0	6779.7	5673.9	23083.8	377.8	10416	
전체 산업에서 10대 산업 비중				62%	65%	60%	61%	54%	63%	60%	49%	53%

* 단위: 매출액, 수출, 급여는 조원, 법인세, 연구개발 설비투자, 기부금은 실액원, 고용은 천명, 기업수는 개

** 순위는 공한점수 기준

<한국경제 살리기 연속토론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

토론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재고

조 중 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I. 우리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재고

1. 바른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토론회 개최 : 매우 시의에 적절
(다음주 기업 비판에 대한 토론회도 예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Beyond the CSR) :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책임의 균형과 조화(2010년 4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 : 기업, 노조,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 ☞ 이런 문제에 적극적인 사업 활성화를 기대함/건의
2. 설문조사 :
 - *일반인 : 일자리 창출 & R&D 의 국가경쟁력
 - 청년실업률(15~29) 9월 10.6% - 최고치 기록과 일치(본인과 부모의 입장 정확히 대변)
 - *기업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품/서비스 공급 - 기업의 이익추구로만 인식?
 - 이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다음주 반기업 정서 토론회가 기대됨)
3. 기업의 국가. 사회공헌 인식제고 필요성
 - *기업이 경제발전의 주역 vs 대주주의 이익 추구(롯데, 한진해운.....)
 - *반기업 정서 vs 기업경영의 위축.왜곡 *3번째 부인 부동산???
 - *기업의 역할 이해 부족: 국민성장, 공정성장, 동반성장, 경제민주화(대기업의 횡포)
 - *경영 Paradigm의 변화: 이익과 함께 국가경제 공헌 - 정상적인 노력에 의한 이익
 - *자본주의의 모순 강화: 시장경제가 기본이나 보완책
(우리 문화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 평등.....)
 - 기업/기업인 스스로의 자기반성 & 노력도 병행되어야: 롯데, 한진해운 등 - 기업인에 대한 비웃음과 일반 국민들의 습습할 심경 - 이를 어루만져줄 노력 필요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강화도 필요
- 사회적 책임 중요성 낮음(환경, 사회공헌활동 등): 본연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인식 내재
(돈 쓰기도 제대로 대접 못받는 상황- 기업/기업인들은 억울하겠지만 현상을 직시해야)
- * 기업스스로는 공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저는 역할/책임이라는 표현을 선호
(죄송 - 한국기업공헌평가원과 무관한 내용임 - 오해 없으시기 바람)
- 칭찬은 남이 하는 것임
- 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
(인식의 전환)
- *** 기업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오해 없으시기 바람
(노조, 정치권, 법조계, 언론, 종교계, NGO, 시민 - ISR 시대의 도래)

II. 기업집단의 국가·사회공헌

1. 10대 기업 vs 11-20대 기업

구 분			10대 기업(A)	11-20대 기업(B)	A/B
1-1	가치창출공헌	천억	4,197.51 (-3%)	1,615.35 (-10%)	2.6
1-2	외화가득	천억	2,937.57 (0%)	720.04 (-21%)	4.1
2-1	국민소득	천억	333.26 (3%)	207.00 (17%)	1.6
2-2	국가재정	십억	7,454.22 (-3%)	1,722.72 (2%)	4.2
3	일자리 창출	천명	397.12 (0%)	144.29 (22%)	2.8
4-1	R&D	십억	21,553.89 (-12%)	2,182.48 (11%)	9.9
4-2	설비투자	십억	40,113.88 (47%)	7,959.67 (-5%)	5.0
5	사회&환경	십억	769.85 (19%)	180.23 (45%)	4.3

Q1 : 종합 순위 : 무슨 기준 - 자산, 매출, 이익?

- 가치창출(매출): 국내 /국외 포함?
 - * 대기업 위주의 성장의 한계: 또 다른 성장 동력의 창출 - **중견기업**
- 외화가득(수출): 어떻게 중요? (기업 활력 제고 - 지원 등이 아니라)
 - * WTO: 세계무역 성장률 1.7%
 - * 중국의 세계 1위 점유 품목: 섬유제품, 전자기기, 비전자기기 등 1538개 품목
 - * 한국 세계 시장 1위 품목: 메모리반도체, 대형TV, 디스플레이패널, 자동차 부품
특수선, 특수강 등 65개 품목
- 국민소득(급여): 인건비 부담 가중 - **귀족노조 문제 대응(도요다 vs 현대차)**
- 국가재정공헌: **법인세 인상 논쟁에의 대응**
 - * 최고세율 22%, 더민주 25%(500억 이하 22%), 국민의 당 24%
- 일자리 공헌: 궁극적으로 기업이 늘어(기업 환경 & 규제-실질적 타파 - 차선의 이론)
- R&D: 세제 혜택 & 국가지원 - 대상의 변화(중견기업)
대학 교육(이공계 교육 혁신)
- 시설투자: 타 업종에의 확산책?
- 사회공헌 : 12,520 / 11,541,000 = 0.1%

* 바른사회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역할/사업활동이 자명하게 드러났음.

(2) 기업 집단

Q2 : 기업집단의 구분 - 중견기업의 기준?

*중소기업의 주준 : 3년 평균매출액으로 단일화(상한기준-5,000억원만 존치)

*일반적 매출 1,500 이상, 자산규모 5조 미만

(국내기업의 0.08%, 2,979개) (매출 : 483조, 13.5%)

(수출 929억불(17.6&)(고용 7.3%,일자리 90만개) / 2014년  10배는 되어야

구 분			대기업 집단	중견기업(비중)		A/B
1	가치창출(매출)	조원	1,311	503	21%	38.3%
2	외화가득	조원	598	59	8%	9.9%
3	국민소득	조원	87	45	25%	51.7
4	국가재정	십억	15,034	7,337	25%	47.9%
5	일자리 창출	천명	1,347	1,029	30%	76.4%
6	R&D	십억	29,260	5,498	14%	18.8%
7	설비투자	십억	80,019	20,644	17%	25.8%
8	사회&환경	십억	1,582	461	19%	29.1%

새로운 동력으로서의 중견기업 활성화 절실

정부의 Hidden Champion 육성: 독일/일본의 강소 기업-지주

(국제 기준: 세계시장에서 1~3위 혹은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거나 매출액 6조원 이하의 기업)

(한국: 히든챔피언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글로벌 히든챔피언(4000억원)의 5분의1 수준)

제안 : 시민단체에서도 중견기업 육성에 관심을 갖고 사업 개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2)

윤 상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 요약

-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 설문조사의 검토 및 비교**
 -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기업의 역할인 반면 가치창출, 사회공헌, 환경보호 등은 낮은 순위를 차지
 -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기여가 기업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이나 가치 창출 또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인식
 - 일반인과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역할에 대한 두 집단의 가장 큰 인식 차이는 가치 창출에 대한 중요도이며 환경보호와 사회공헌활동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
- **가치창출 공헌,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항목(8가지 세부항목)을 통한 기업(집단)의 국가사회공헌에 대한 측정 시도**
 - 대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의 매출순위에 따라 대부분 항목의 국가사회공헌정도 혹은 국가경제공헌 순위가 결정되는 반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최근 매출과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
 - 매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세수, 사회/환경공헌 액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는 정체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 본질적 질문의 부재

- **기업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 가치창출을 제외한 외화기득, 국민소득, 국가재정,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사회/환경공헌 등 타 항목들은 기업을 형성하는 이유와 전혀 무관
 - 기업의 형성하는 이유는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
 -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보다 회사의 형성을 통한 거래 비용이 낮기 때문에, 즉 거래의 내부화를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을 형성
 - 기업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시장의 불안벽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여러 시장 기구(market institution) 및 도구 중 하나에 불과
- **가치 창출 외에 위에서 열거된 타 항목들을 기업의 국가사회공헌으로 인식하면 기업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에 대한 오해를 야기**
 - 마치 기업의 목적과 역할이 이윤의 극대화 및 이윤 창출이 아니고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진다고 인식하며 기업에 대한 오해가 시작
 - 시장 기구 및 도구 중 하나인 기업과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인 기업주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하게 정의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재고와 인식은 필수적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3. 기업의 사회국가공헌 항목별 구분에 대한 개선 및 재고

- 한 예로 외화기공헌(수출)을 기업의 역할로 인식한다는 것은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인식에서 출발
 - 수출의 기본 목적은 수입이며 수출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입이 사회적(국민 개인별) 후생 증진에 실제적인 기여
 - 수출과 수입에 대한 오해는 마치 수출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수입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라는 인식을 야기
 - 진정한 기업의 공헌에 대한 측정은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국민 개인별 후생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관심을 요구

- 발제문에서 소개된 기업의 각종 사회국가공헌 지표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보면 기업의 형성을 통해 추구하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즉 기업 활동의 실패를 의미
 -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기업의 형성 목적은 거래비용의 최소화, 즉 거래의 내부화를 통한 이윤 창출이 유일
 - 반면 발제문에서 열거된 각종 사회국가공헌의 항목별 측정은 기업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경제(i.e., positive externality)의 비효율적 내부화 가능성을 제기
 - 즉 외부경제의 효율적 내부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실패를 의미하는 자료로도 해석이 가능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